



창의성과 (Creativity)

소통은 (Communication)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앞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들에게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칠 수 있게 하는 인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였지만,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가정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가정 안팎에서 인성교육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최근의 패러다임은 개인의 뛰어난 역량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발휘되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창의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산적인 사고를 촉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욕구와 감정 및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타인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의성이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문명이 정보화 사회로 나가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많은 정보보다는 오히려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재가 필요한 사회인 것이다. 또한, 창의성은 인간 정신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관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컴퓨터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간 자체가 네트워크화되어 가는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와 산출물은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개인과 집단의 생활을 유연하게 하는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능력은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자 자질이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전공 서

적을 분석하고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는 조직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대인관계와 팀워크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재 선발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이 핵심 관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테레사 아마빌(Teresa Amabile)에 의하면, 창의성은 새로움(new, novelty)과 유용한 것(usefulness)을 산출해내는 과정과 산출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서 새롭다는 것과 유용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존 산출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전제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유용한 것이란 편리성, 용이성, 참신성, 가치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만족되지 않는 산물은 창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이용해 원자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한 것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남들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한다고 해서, 혹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를 창의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불편하다. 또한, 창의성을 단순히 경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만 활용한다면 창의성의 소중한 가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다. 자신의 창조적 역량을 주변의 타인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과 소통은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불편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고, 소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수많은 교류를 하며 성장한다. 타인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 자아와의 소통은 인간의 생존과 성장, 행복에 핵심을 쥐고 있다.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물으면 병마가 주는 고통보다는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아 그 외로움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다. 최근 자살이 많은 이유도 그가 속한 사회와 원만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소통의 결핍은 소외를 낳는다. 만약, 그를 둘러싼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를 따뜻하게 보듬었다면 그런 최후의 선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나 자신은 이 지구 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가장 독창적인 존재다. 내면 깊숙하게 숨어있는 자기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자신과 만나고 새롭게 타인과 사물 그리고 자연을 만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아니겠는가. TTA

